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6월 미 핵심 자본재 주문, 예상치 웃돌아
- CNBC: 미 연준, 7월 금리 동결 전망…올해 인하는 힘들 듯

[미국 금융]
- Bloomberg: 중동 긴장에 채권 시장은 7월 연준 금리 인상 확률 33%
- Bloomberg: 모건스탠리 "AI 도입 미국 기업, 순이익률 상승 전망"

[중동 전쟁]
- Bloomberg: 미·이란 공격 중단 사흘째… 긴장 완화
- WSJ: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 저조

[오일]
- WSJ: 미·이란 공격 중단에 국제유가 5% 이상 폭락

[트럼프 관세]
- WSJ: 301조 '강제 노동' 관세 경제적 여파는 여전히 비슷
- CNBC: 미 신규 관세 명분에 각국 반발… 보복 대신 협상 분위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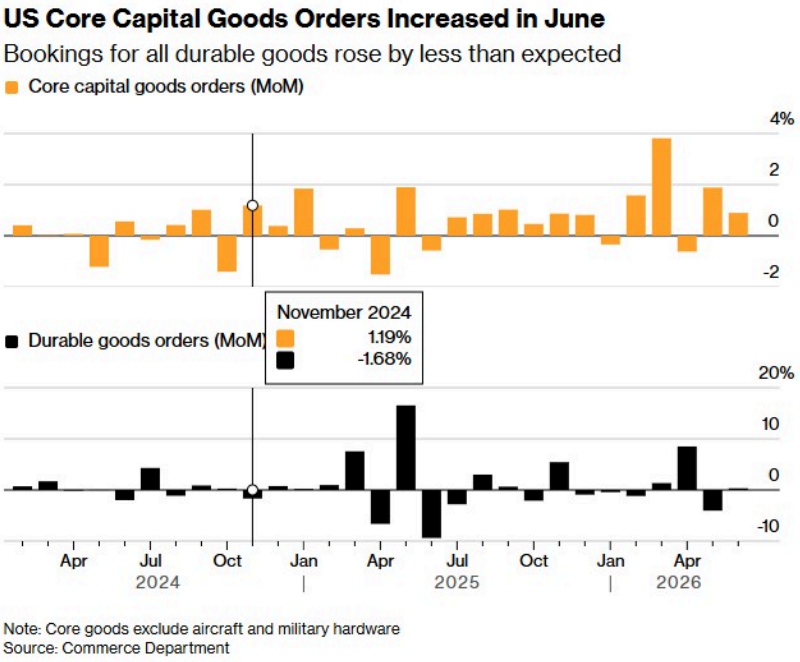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WSJ: 빅테크 기업들 다시 채용…"AI 시대, 사람이 필요"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Core Capital Goods Orders Climb by More Than Expected
6월 미 핵심 자본재 주문, 예상치 웃돌아

- 지난 6월 미국의 기업 설비 주문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며 상반기 지속된 견조한 자본 투자를 보였다.
- 오늘 월요일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, 핵심 자본재 주문이 상향 조정된 지난 5월(1.9% 증가)에 이어 6월 핵심 자본재 주문액도 0.9% 증가했다.
- 올해 기업 투자는 인공지능 관련 지출과 전쟁 여파로 급증한 국방 주문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.



기사

CNBC: Federal Reserve is likely to hold interest rates steady. Here's what that means for consumers
미 연준, 7월 금리 동결 전망…올해 인하는 힘들 듯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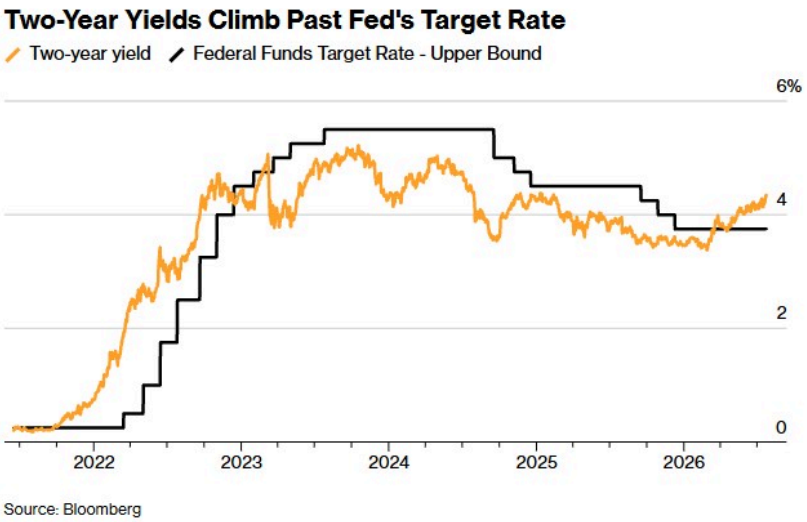
- 미 연준은 이번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. 6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 상승률이 3.5%로 깜짝 하락했으나, 최근 중동 갈등 재발과 유가 상승이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.
- 연준의 기준 금리 예측 지표인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이번 주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며 9월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.
- 컬럼비아 경영 대학원 Brett House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이 여전히 걸림돌이라며, 단기간 내 인하는 어려워 대통령과 연준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Bond Traders on Edge as Middle East Conflict Clouds Fed Outlook
중동 긴장에 채권 시장은 7월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3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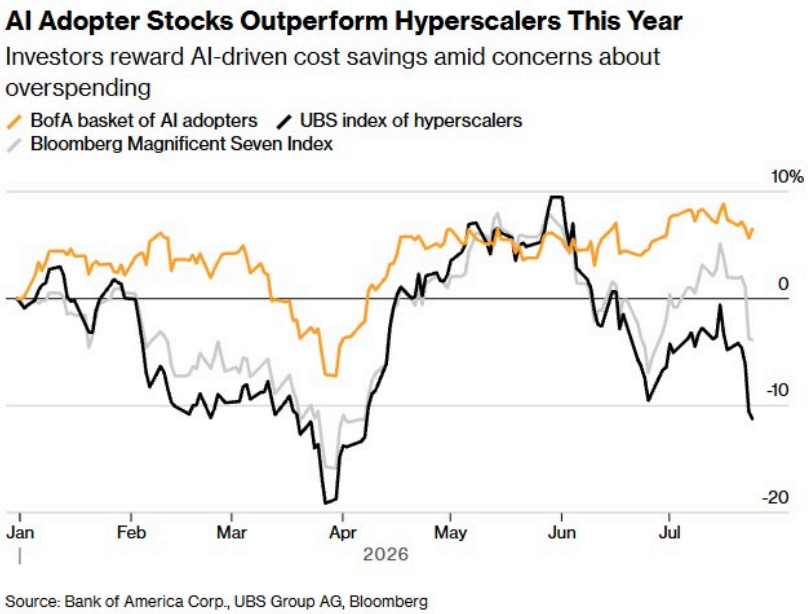
-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, 채권 시장은 오는 수요일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을 약 3분의 1(33%)로 반영하고 있다.
- 이에 따라 2023년 이후 첫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미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.
- 현재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견조한 고용 시장을 발판 삼아 물가 안정(목표치 2%)에 집중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.



기사

Bloomberg: Morgan Stanley Says AI Adopters Set for Solid Profit Margins
모건스탠리 "AI 도입 미국 기업, 순이익률 상승 전망"

-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모건스탠리 전략가들이 전망했다.
- Michael Wilson이 이끄는 이 투자 은행 전략팀은 AI 투자를 핵심 과제로 삼은 기업들의 순이익률이 2027년까지 약 1% 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.
- 윌슨은 AI 도입 기업들의 성장 전망이 갈수록 유망해지고 있으며, 특히 기존에 AI 위협에 취약하다고 여겨졌던 운송, 소프트웨어·서비스, 전문 서비스 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눈에 띌 것이라고 분석했다.



기사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Middle East Tensions Ease as the US and Iran Pause Strikes

미·이란 공격 중단 사흘째… 긴장 완화

- 미국과 이란 간의 상호 공격 중단 상태가 사흘째 유지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냈다.
- 미 정부에 따르면 양국 간 대화가 "진행 중"인 것으로 알려졌으나,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공식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혀 서로 차이점을 보였다.
- 한편,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석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하고, 이란 역시 자국 방어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중동의 긴장감은 여전히 고조되어 있다.

기사

WSJ: Hormuz Traffic Stalls Despite Pause in Fighting
호르무즈 해협 통행량 저조

- 미국의 대 이란 공격 중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,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지난주 후반과 마찬가지로 하루 6~12척 수준의 저조한 흐름을 유지했다.
- 반면,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봉쇄 위협 이후 일시 감소했던 바브엘만데브 해협(Bab el-Mandeb)의 통행량은 비교적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
- 일부 선사들은 여전히 이 해협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

기사

[오일]

WSJ: Oil Sinks After U.S. Pauses Iran Strikes, Reviving Hopes for Diplomacy
미·이란 공격 중단에 국제유가 5% 이상 폭락

-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일시 중단하면서 5개월간 이어진 충돌의 외교적 해결 기대감이 높아지자, 월요일 국제유가가 5% 이상 폭락했다.
- 이날 초반 거래에서 이번 달 만기를 앞둔 브렌트유 선물은 5.5% 하락한 배럴당 91.44달러, 다음달 선물은 4.6% 내린 87.47달러를 기록했다.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 역시 5.1% 하락한 84.76달러에 거래됐다.
- 세계 금융 기관인 ING의 분석가들은 "오늘 아침 유가 흐름은 호재에 목말라 있던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진단했다. 앞서 지난주 까지만 해도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.

기사

[트럼프 관세]

WSJ: What Trump’s Latest Tariffs Mean for the American Economy
301조 ‘강제 노동’ 관세 경제적 여파는 여전히 비슷

- 무역법 301조 관련 강제 노동 제품 관세율의 실제 효과와 관련해 무역 적자 해소나 제조업 부활이 아닌 수입품 물가 상승으로만 이어지고 있다.

- 기업들의 대응 관련해 팬데믹을 거치며 면역이 생긴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가격 조정을 통해 기민하게 적응 중이다.
- 물론 법적 반발도 있어 교육용 장난감 업체(Learning Resources) 등 일부 기업들은 "강제 노동 명목의 신규 관세는 근거가 없다"며 즉각 재소송을 제기했다.

기사

CNBC: Trump’s new global tariff draws rebukes from trade partners over forced labor justification
미 신규 관세 명분에 각국 반발… 보복 대신 협상 분위기

- 미국이 '강제 노동 방지 미흡'을 명목으로 상위 60개국에 10~12.5%의 무역법 301조 신규 관세를 발표하자, 호주·브라질 등 주요 무역국들은 명분이 부당하다며 일제히 반발했다.
- 호주 통상장관은 "호주는 강제 노동 근절의 세계적 선도국이며, 이번 관세는 자유무역협정(FTA)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"라고 비판했다.
- 다만 대다수 국가들은 즉각적인 보복 맞대응보다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.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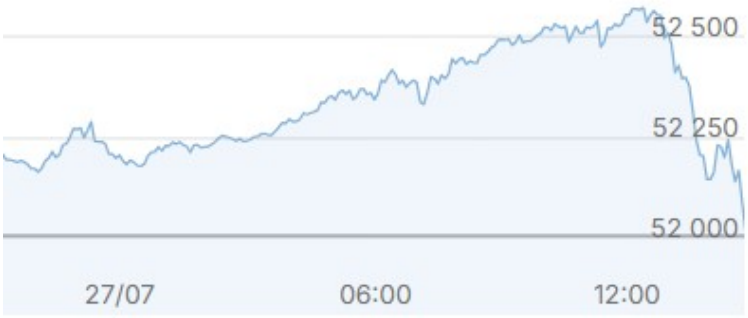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WSJ: Big Companies Are Starting to Hire Again, Defying Predictions of AI Wipeout
빅테크 기업들 다시 채용…“AI 시대, 사람이 필요”

- 그동안 인력 채용을 미뤄왔던 미국 주요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함께 채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다시 고용 문을 열고 있다.
-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. 철도물류업체 CSX 역시 늘어나는 물동량 수요에 대응해 소폭의 인원 증원을 예상하고 있다.
- 최근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고용 시장의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줬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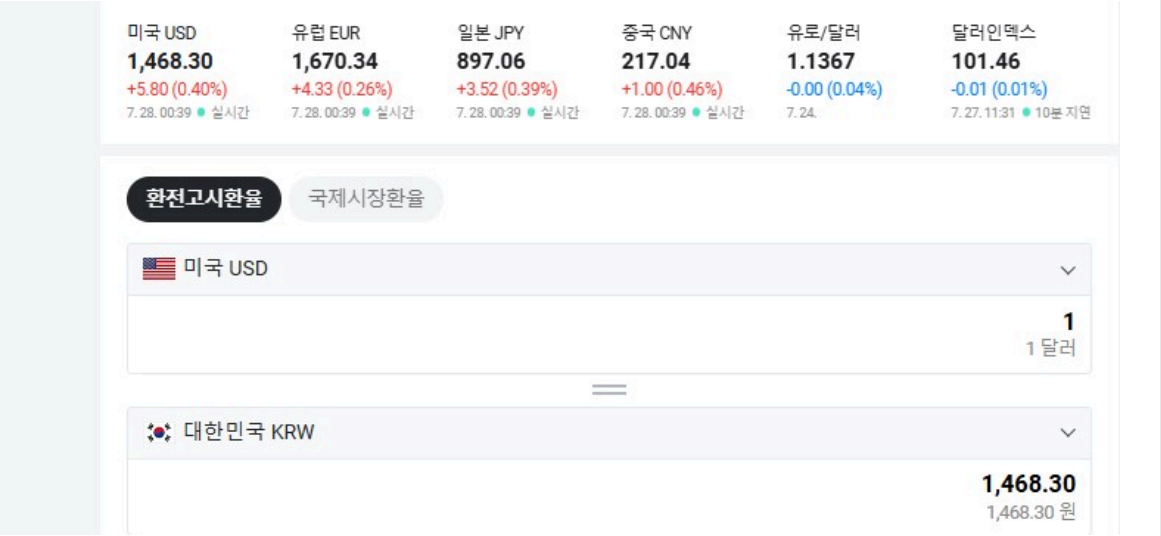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2,042.40	+95.9	+0.18%
US 500	7,391.80	-20.2	-0.27%
Dow Jones	52,043.54	+96.29	+0.19%
S&P 500	7,392.03	-19.93	-0.27%
Nasdaq	24,840.18	-135.65	-0.54%
S&P 500 VIX	19.59	+1.01	+5.44%
Dollar Index	101.31	+0.008	+0.01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4/32	5.136	-0.027
10-Year Note	4.375	3/32	4.650	-0.037
7-Year Note	4.25	2/32	4.515	-0.039
5-Year Note	4.125	2/32	4.401	-0.038
3-Year Note	4.125	1/32	4.346	-0.029
2-Year Note	4.125	1/32	4.318	-0.034
1-Year Bill	0	0/32	4.115	-0.011
6-Month Bill	0	0/32	4.053	0.005
3-Month Bill	0	0/32	3.914	0.010
1-Month Bill	0	0/32	3.767	0.005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